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8 주차 (5:39~6:15)

(2015년 3월 22일 - 2015년 3월 28일)

(제3권 9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 - 제 9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3 월 22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이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곧 나에게 증거한다 (주일)

오늘의 말씀 (요 5: 39~47)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39절) 당신들은 성경들을 연구합니다 (ἐραυνᾶτε τὰς γραφάς,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ὑμεῖς δοκεῖτε ἐν αὐταῖς ζωὴν αἰώνιον ἔχειν·)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καὶ ἐκεῖναί εἰσιν αἱ μαρτυροῦσαι περὶ ἐμοῦ·)
- (40절) 그런데 당신들은 생명을 갖기 위해 나에게 오려 하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 θέλετε ἔλθειν πρὸς μεῖνα ζωὴν ἔχητε.)
- (41절)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Δόξαν παρὰ ἀνθρώπων οὐ λαμβάνω.)
- (42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 안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ἀλλὰ ἔγνωκα ὑμᾶς ὅτι τὴν ἀγάπην τοῦ θεοῦ οὐκ ἔχετε ἐν ἑαυτοῖς.)
- (43절)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ἐγὼ ἐλήλυθα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 λαμβάνετε με·)
만약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오면 (ἐὰν ἄλλος ἔλθῃ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ῷ ἰδίῳ.)
당신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ἐκεῖνον λήμψεσθε.)
- (44절) 당신들 서로에게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πῶς δύνασθε ὑμεῖς πιστεῦσαι δόξαν παρὰ ἀλλήλων λαμβάνοντες, καὶ τὴν δόξαν τὴν παρὰ τοῦ μόνου θεοῦ οὐ ζητεῖτε.)
- (45절) 내가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Μὴ δοκεῖτε ὅτι ἐγὼ κατηγορήσω ὑμῶν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ἔστιν ὁ κατηγορῶν ὑμῶν Μωϋσῆς.)

- 당신들은 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εις ὃν ὑμεῖς ἠλπίκατε.)
 (46절) 만약 당신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εἰ γὰρ ἐπιστεύετε Μωϋσῆϊ, ἐπιστεύετε ἂν ἐμοί.)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περὶ γὰρ ἐμοῦ ἐκεῖνος ἔγραυεν.)
 (47절) 그런데 당신이 그의 글들도 믿지 않는다면(εἰ δὲ τοῖς ἐκεῖνου γράμμασιν οὐ πιστεύετε,)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습니까?(πῶς τοῖς ἐμοῖς ῥήμασιν πιστεύσ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9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말씀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연구하는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 자체는 옳다고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옳다해도 말씀을 해석하는 방향과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는 전혀 판판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아예 썰기를 박아버립니다.(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신약은 한 권도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고 거기서 발견된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읽든, 거기에 수록된 수많은 율법이든, 역사서든, 예언서든, 시가서든, 무엇을 읽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며 그를 통한 영생과 은혜로 연결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리하게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읽어서는 곤란하겠지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전락시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를 비롯하여 세상의 종교나 철학 등에서 말하는 교훈적 것들을 성경이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교훈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그것만큼 불경스러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바꾸어 버린 유대인들을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²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³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⁴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⁵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⁶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⁷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

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⁸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⁹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¹⁰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마 15:1-10).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 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교훈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 정도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알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교훈들만 찾아냅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의 교훈 수준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4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영생을 갖기 위해 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나오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떠한 뜻도 두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영생의 방법이 무엇인지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흔히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자신에게 맺히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하거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결과나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지요. 문제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찝찝한 구석이 있어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로 흐릅니다. 인간 본성이 당연히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남겨진 행함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빛진 자가 되어 그 빛을 갇아나가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 사역이 미완의 것인 양 또 다시 자신의 행위로 입증해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빈손으로 나와서 엮치 불구하고 그 위대한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월요일)

오늘의 말씀 (요 5:39~47)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39절) 당신들은 성경들을 연구합니다 (ἐραυνᾶτε τὰς γραφάς,)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ὑμεῖς δοκεῖτε ἐν αὐταῖς ζωὴν αἰώνιον ἔχειν.)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καὶ ἐκεῖναί εἰσιν αἱ μαρτυροῦσαι περὶ ἐμοῦ.)
- (40절) 그런데 당신들은 생명을 갖기 위해 나에게 오려하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 θέλετε ἔλθειν πρὸς μεῖνα ζωὴν ἔχητε.)
- (41절)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Δόξαν παρὰ ἀνθρώπων οὐ λαμβάνω.)
- (42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 안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ἀλλὰ ἔγνωκα ὑμᾶς ὅτι τὴν ἀγάπην τοῦ θεοῦ οὐκ ἔχετε ἐν ἑαυτοῖς.)
- (43절)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ἐγὼ ἐλήλυθα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 λαμβάνετε με.) 만약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오면 (ἐὰν ἄλλος ἔλθῃ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ῷ ἰδίῳ,) 당신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ἐκεῖνον λήμψεσθε.)
- (44절) 당신들 서로에게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πῶς δύνασθε ὑμεῖς πιστεῦσαι δόξαν παρὰ ἀλλήλων λαμβάνοντες, καὶ τὴν δόξαν τὴν παρὰ τοῦ μόνου θεοῦ οὐ ζητεῖτε.)
- (45절) 내가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Μὴ δοκεῖτε ὅτι ἐγὼ κατηγορήσω ὑμῶν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ἔστιν ὁ κατηγορῶν ὑμῶν Μωϋσῆς.)

- 당신들은 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εις ὃν ὑμεῖς ἠλπίκατε.)
 (46절) 만약 당신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εἰ γὰρ ἐπιστεύετε Μωϋσῆϊ, ἐπιστεύετε ἂν ἐμοί.)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περὶ γὰρ ἐμοῦ ἐκεῖνος ἔγραυεν.)
 (47절) 그런데 당신이 그의 글들도 믿지 않는다면(εἰ δὲ τοῖς ἐκεῖνου γράμμασιν οὐ πιστεύετε,)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습니까?(πῶς τοῖς ἐμοῖς ῥήμασιν πιστεύσ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들도부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도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 즉,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둘 중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한글 번역에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매우 잘된 번역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막10:45).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²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 소이다 ³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⁵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⁶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⁷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⁸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⁹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¹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요 17:1-10)

예수님의 영화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으며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들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42~44절을 읽으십시오. 4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 안에 없음을 알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으로 그 자리를 메우려 한다는 뜻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의 기준에 따라 열매 없는 사랑을 한 적은 없는지요? 있다면 그 경험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43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 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헬라어의 가정법 중에 ‘헤안(ἔαν)’이 쓰였는데, 이 말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확률은 0% ~ 100%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이를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나 다른 특정 인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들이 원하는 영웅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44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너희 서로에게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오직 인간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그 속에서 영광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인간들이 인간을 높이고 인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한다면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실망을 하거나 반대로 칭찬하며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려고 한다거나 반대로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실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결코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모세다 (화요일)

오늘의 말씀 (요 5:39~47)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39절) 당신들은 성경들을 연구합니다 (ἐραυνᾶτε τὰς γραφάς,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ὑμεῖς δοκεῖτε ἐν αὐταῖς ζωὴν αἰώνιον ἔχειν·)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καὶ ἐκεῖναί εἰσιν αἱ μαρτυροῦσαι περὶ ἐμοῦ·)
- (40절) 그런데 당신들은 생명을 갖기 위해 나에게 오려하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 θέλετε ἔλθειν πρὸς μεῖνα ζωὴν ἔχητε.)
- (41절)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Δόξαν παρὰ ἀνθρώπων οὐ λαμβάνω.)
- (42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 안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ἀλλὰ ἔγνωκα ὑμᾶς ὅτι τὴν ἀγάπην τοῦ θεοῦ οὐκ ἔχετε ἐν ἑαυτοῖς.)
- (43절)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ἐγὼ ἐλήλυθα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 λαμβάνετε με·)
만약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오면 (ἐὰν ἄλλος ἔλθῃ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ῷ ἰδίῳ.)
당신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ἐκεῖνον λήμψεσθε.)
- (44절) 당신들 서로에게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πῶς δύνασθε ὑμεῖς πιστεῦσαι δόξαν παρὰ ἀλλήλων λαμβάνοντες, καὶ τὴν δόξαν τὴν παρὰ τοῦ μόνου θεοῦ οὐ ζητεῖτε.)
- (45절) 내가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Μὴ δοκεῖτε ὅτι ἐγὼ κατηγορήσω ὑμῶν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ἔστιν ὁ κατηγορῶν ὑμῶν Μωϋσῆς.)

- 당신들은 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εις ὃν ὑμεῖς ἠλπίκατε.)
 (46절) 만약 당신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εἰ γὰρ ἐπιστεύετε Μωϋσῆϊ, ἐπιστεύετε ἂν ἐμοί.)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περὶ γὰρ ἐμοῦ ἐκεῖνος ἔγραυεν.)
 (47절) 그런데 당신이 그의 글들도 믿지 않는다면(εἰ δὲ τοῖς ἐκεῖνου γράμμασιν οὐ πιστεύετε,)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습니까?(πῶς τοῖς ἐμοῖς ῥήμασιν πιστεύσ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5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당신들은 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고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언뜻 보면 이는 전체 맥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영생→영광→고소 등으로 주제를 옮겨 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흔히 사용하는 화법으로 우리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경은 영생을 주는 것인데 그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은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이지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오경뿐 아니라 그것에 관한 조상들의 해석과 적용 등을 포괄한 모든 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그 모세오경 즉, 율법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반드시 ‘고소’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비로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앞서 많은 부분에서 다루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율법의 역할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 보기로 하지요. 먼저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롬3:19-20).

“¹⁹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²⁰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19-20).

율법의 역할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을 지켜 내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니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고소하는 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롬 4:15).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9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롬 7:7-13).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 주며, 바로 그 율법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한 발자욱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외없이 율법에 의해 고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서 오히려 고마운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것임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3:19-24)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율법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인간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율법이 오는 순간 우리는 그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이 오면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복음이 반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에 의해 우리가 죄 아래 갇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에 의해 갇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 못하는 그 심판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소하는 이로 모세를 지명한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율법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경험이 있나요?(이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45절 하반절~47절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선포한 율법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일단 주어진 율법만 잘 지켜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성취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고 생각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소망을 두었다고 한말은 바로 그런 그들의 구원관을 간파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율법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쟁취해내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여기서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갈 3:21하).

당신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여전히 지킬만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깨달았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오병이어의 기적 (1)(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6:1~15)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에게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
14.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이 일이 있은 후 (Μετὰ ταῦτα)
예수님이 갈릴리, 즉,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ἀπῆλθεν ὁ Ἰησοῦς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τῆς Γαλιλαίας τῆς Τιβεριάδος.)
- (2절)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ἦκολούθει δὲ αὐτῷ ὄχλος πολὺς.)
왜냐하면 그가 환자들에게 행하는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εἰθεύρουσαν τὰ σημεῖα ἃ ἐποίει ἐπὶ τῶν ἀσθενούντων.)
- (3절) 예수께서 산에 올랐습니다 (ἀνῆλθεν δὲ εἰς τὸ ὄρος Ἰησοῦς)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καὶ ἐκεῖ ἐκάθητο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 (4절) 유대인의 축제일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ἦν δὲ ἐγγὺς τὸ πάσχα, ἡ ἑορτὴ τῶν Ἰουδαίων.)
-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Ἐπάρας οὖ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θεασάμενος ὅτι πολὺς ὄχλος ἔρχεται πρὸς αὐτὸν)

-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Φίλιππον·)
 그들에게 먹일 빵을 어디서 살 것인가? (πόθεν ἀγοράσωμεν ἄρτους ἵνα φάγωσιν οὗτοι·)
- (6절) 그가 그를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τοῦτο δὲ ἔλεγεν πειράζων αὐτόν·)
 그가 친히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αὐτὸς γὰρ ᾔδει τί ἔμελλεν ποιεῖν·)
- (7절)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ὁ] Φίλιππος·)
 각각 조금씩만 받아도 이백 데나리온의 빵이 모자랄 것입니다
 (δ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ἄρτοι οὐκ ἀρκοῦσιν αὐτοῖς ἵνα ἕκαστος βραχὺ [τι] λάβῃ·)
- (8절)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Ἀνδρέας ὁ ἀδελφὸς Σίμωνος Πέτρου·)
- (9절) 여기에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ἔστιν παιδάριον ᾧδε ὃς ἔχει πέντε ἄρτους κριθίνους καὶ δύο ὀψάρια·)
 그러나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ἀλλὰ ταῦτα τί ἐστὶν εἰς τοσοῦτους·)
-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그 사람들을 앉도록 하라 (ποιήσατε 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ἀναπεσεῖν·)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습니다 (ἦν δὲ χόρτος πολὺς ἐν τῷ τόπῳ·)
 그래서 오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ἀνέπεσαν οὖν οἱ ἄνδρες τὸν ἀριθμὸν)
 그들이 앉게 되었을 때 (ὡς πεντακισχίλιοι)
- (11절) 예수님이 그 빵 덩어리를 잡으셨습니다 (ἔλαβεν οὖν τοὺς ἄρτους ὁ Ἰησοῦς)
 그리고 축사를 하신 후에 (καὶ εὐχαριστήσας)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διέδωκεν τοῖς ἀνακειμένοις)
 그리고 물고기로부터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ὁμοίως καὶ ἐκ τῶν ὀψαρίων ὅσον ἤθελον·)
- (12절) 그리고 그들이 만족하게 되었을 때 (ὡς δὲ ἐνεπλήσθησαν·)
 그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버리는 것이 없도록 넘치는 조각들을 모으라
 (συναγάγετε τὰ περισσεύσαντα κλάσματα, ἵνα μὴ τι ἀπόληται·)
- (13절)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συνήγαγον οὖν)
 그것들은 다섯 개의 보리 빵 조각들로부터 열두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καὶ ἐγένεσαν δώδεκα κορῖνοι κλασμάτων ἐκ τῶν πέντε ἄρτων τῶν κριθίνων)
 그것은 그것을 먹은 사람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ἃ ἐπερίσσευσαν τοῖς βεβρωκόσιν·)
- (14절) 그런데 그가 행한 표적을 그사람들이 보았을 때 (Οἱ οὖν ἄνθρωποι ἰδόντες ὃ ἐποίησεν σημεῖον)
 그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이분은 진실로 이 땅으로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ἀληθῶς ὁ προφήτης ὁ ἐρχόμενο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곧 그에게 와서 그를 잡으려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
 (Ἰησοῦς οὖν γνοὺς ὅτι μέλλουσιν ἔρχεσθαι καὶ ἀρπάζειν αὐτόν ἵνα ποιήσωσιν βασιλεία·)
 그 자신이 홀로 다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ἀνεχώρησεν πάλιν εἰς τὸ ὄρος αὐτὸς μόνο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 네 권에 모두 수록된 몇 안되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는 유일하게 기록된 것임). 네 저자가 모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명명된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오병이어’라는 말이 사자성어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엄청난 기적의 내용은 알면서도 정작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적용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신만의 신앙일 뿐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진의를 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걸까요? 오늘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티브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대부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6장은 전체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기록에 있어 다른 공관 복음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모티브입니다.

“⁴³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좃아간지라 ⁴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⁴⁵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마14:13-15).

“⁴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³¹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³²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³³ 그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도 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³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³⁵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³⁶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막 6:30-36).

“⁴⁰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벧새다리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¹¹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¹² 날이 저물어가매 열 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눅 9:10-12).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이유가 제자들의 전도 활동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이 가장 큰 동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복음서의 기록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이유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에 있는 같은 사건이 제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고유의 주제를 설명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변증서이자 구약에 기록된 많은 언약과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설명해 주는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러한 관점에서 읽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1~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즉,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행하는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발단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복음을 들어도 자신들의 가치관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그것을 추구할 따름이지요.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른 감이 있지만 1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본 데다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기적의 직접적 수혜자가 된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대부분의 변영 신학이나 은사주의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자신과 관계가 있나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분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왜 예수님을 믿는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 보시고 그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오병이어의 기적 (2)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6:1~15)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
14.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이 일이 있은 후 (Μετὰ ταῦτα)
예수님이 갈릴리, 즉,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ἀπῆλθεν ὁ Ἰησοῦς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τῆς Γαλιλαίας τῆς Τιβεριάδος.)
- (2절)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ἦκολούθει δὲ αὐτῷ ὄχλος πολὺς.)
왜냐하면 그가 환자들에게 행하는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εἰθεώρουν τὰ σημεῖα ἃ ἐποίει ἐπὶ τῶν ἀσθενούντων.)
- (3절) 예수께서 산에 올랐습니다 (ἀνῆλθεν δὲ εἰς τὸ ὄρος Ἰησοῦς)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καὶ ἐκεῖ ἐκάθητο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 (4절) 유대인의 축제일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ἦν δὲ ἐγγὺς τὸ πάσχα, ἡ ἑορτὴ τῶν Ἰουδαίων.)
-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Ἐπάρας οὖ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θεασάμενος ὅτι πολὺς ὄχλος ἔρχεται πρὸς αὐτὸν)

-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Φίλιππον·)
 그들에게 먹일 빵을 어디서 살 것인가? (πόθεν ἀγοράσωμεν ἄρτους ἵνα φάγωσιν οὗτοι·)
- (6절) 그가 그를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τοῦτο δὲ ἔλεγεν πειράζων αὐτόν·)
 그가 친히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αὐτὸς γὰρ ᾔδει τί ἔμελλεν ποιεῖν·)
- (7절)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ὁ] Φίλιππος·)
 각각 조금씩만 받아도 이백 데나리온의 빵이 모자랄 것입니다
 (δ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ἄρτοι οὐκ ἀρκοῦσιν αὐτοῖς ἵνα ἕκαστος βραχὺ [τι] λάβῃ·)
- (8절)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Ἀνδρέας ὁ ἀδελφὸς Σίμωνος Πέτρου·)
- (9절) 여기에 보리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ἔστιν παιδάριον ᾧδε ὃς ἔχει πέντε ἄρτους κριθίνους καὶ δύο ὀψάρια·)
 그러나 이것이 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ἀλλὰ ταῦτα τί ἔστιν εἰς τοσοούτους·)
-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그 사람들을 앉도록 하라 (ποιήσατε 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ἀναπεσεῖν·)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습니다 (ἦν δὲ χόρτος πολὺς ἐν τῷ τόπῳ·)
 그래서 오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ἀνέπεσαν οὖν οἱ ἄνδρες τὸν ἀριθμὸν)
 그들이 앉게 되었을 때 (ὡς πεντακισχίλιοι)
- (11절) 예수님이 그 빵덩어리를 잡으셨습니다 (ἔλαβεν οὖν τοὺς ἄρτους ὁ Ἰησοῦς)
 그리고 축사를 하신 후에 (καὶ εὐχαριστήσας)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διέδωκεν τοῖς ἀνακειμένοις)
 그리고 물고기로부터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ὁμοίως καὶ ἐκ τῶν ὀψαρίων ὅσον ἤθελον·)
- (12절) 그리고 그들이 만족하게 되었을 때 (ὡς δὲ ἐνεπλήσθησαν·)
 그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버리는 것이 없도록 넘치는 조각들을 모으라
 (συναγάγετε τὰ περισσεύσαντα κλάσματα, ἵνα μὴ τι ἀπόληται·)
- (13절)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συνήγαγον οὖν)
 그것들은 다섯 개의 보리 빵 조각들로부터 열두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καὶ ἐγένεσαν δώδεκα κορῖνοι κλασμάτων ἐκ τῶν πέντε ἄρτων τῶν κριθίνων)
 그것은 그것을 먹은 사람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ἃ ἐπερίσσευσαν τοῖς βεβρωκόσιν·)
- (14절) 그런데 그가 행한 표적을 그사람들이 보았을 때 (Οἱ οὖν ἄνθρωποι ἰδόντες ὃ ἐποίησεν σημεῖον)
 그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이분은 진실로 이 땅으로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ἀληθῶς ὁ προφήτης ὁ ἐρχόμενο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곧 그에게 와서 그를 잡으려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
 (Ἰησοῦς οὖν γνοὺς ὅτι μέλλουσιν ἔρχεσθαι καὶ ἀρπάζειν αὐτὸν ἵνα ποιήσωσιν βασιλεία·)
 그 자신이 홀로 다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ἀνεχώρησεν πάλιν εἰς τὸ ὄρος αὐτὸς μόνο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절을 읽으십시오. 4절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이후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과 광야의 만나 사건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월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유월절 이전에 보여 주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병이어의 사건과 유월절이 긴밀히 연결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볼 계획이니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이와 관련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37절을 읽으십시오.

“²⁶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²⁷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²⁸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²⁹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³⁰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³¹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³²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³³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³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³⁵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³⁶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³⁷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26-37)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보여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29절을 보겠습니다.

“⁴⁷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⁴⁸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⁴⁹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⁵⁰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⁵¹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⁵²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⁵³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⁵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⁵⁵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⁵⁶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⁵⁷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⁵⁸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⁵⁹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26:17-29).

그날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을 기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나누어 주는 떡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가까왔다는 것은 무교절이 곧 시작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무교절은 출애굽기 13장을 그 뿌리로 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6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전체 본문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²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³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⁴아빱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⁵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⁶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칠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⁷칠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⁸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뵈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⁹이 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¹⁰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¹¹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¹²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 의 것이니라 ¹³나귀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¹⁴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이나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¹⁵그 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¹⁶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출 13:1-16).

결국 무교절은 단순히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는 축제 기간이 아니라 장자들을 대속하는 기간입니다. 단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떡을 발효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이 서둘러 이집트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의 핵심은 무교병을 먹는 데 있지 않고 첫태생들을 여호와에게 돌리고 대속하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이같은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오늘의 본문인 6장 4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왔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단순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인 엄청난 기적, 예수님의 초현실적인 능력을 과시한 사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주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바로 자신의 몸을 드려 생명을 살리는 유월절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오병이어의 기적 (3)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6:1~15)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에게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
14.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이 일이 있은 후 (Μετὰ ταῦτα)
 예수님이 갈릴리, 즉,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ἀπῆλθεν ὁ Ἰησοῦς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τῆς Γαλιλαίας τῆς Τιβεριάδος.)
- (2절)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ἤκολούθει δὲ αὐτῷ ὄχλος πολὺς.)
 왜냐하면 그가 환자들에게 행하는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εἰθεώρουν τὰ σημεῖα ἃ ἐποίει ἐπὶ τῶν ἀσθενούντων.)
- (3절) 예수께서 산에 올랐습니다 (ἀνῆλθεν δὲ εἰς τὸ ὄρος Ἰησοῦς)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καὶ ἐκεῖ ἐκάθητο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 (4절) 유대인의 축제일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ἦν δὲ ἐγγὺς τὸ πάσχα, ἡ ἑορτὴ τῶν Ἰουδαίων.)
-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Ἐπάρας οὖ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θεασάμενος ὅτι πολὺς ὄχλος ἔρχεται πρὸς αὐτὸν)

-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Φίλιππον·)
그들에게 먹일 빵을 어디서 살 것인가? (πόθεν ἀγοράσωμεν ἄρτους ἵνα φάγωσιν οὗτοι·)
- (6절) 그가 그를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τοῦτο δὲ ἔλεγεν πειράζων αὐτόν·)
그가 친히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αὐτὸς γὰρ ᾔδει τί ἔμελλεν ποιεῖν·)
- (7절)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ὁ] Φίλιππος·)
각각 조금씩만 받아도 이백 데나리온의 빵이 모자랄 것입니다
(δ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ἄρτοι οὐκ ἀρκοῦσιν αὐτοῖς ἵνα ἕκαστος βραχὺ [τι] λάβῃ·)
- (8절)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Ἀνδρέας ὁ ἀδελφὸς Σίμωνος Πέτρου·)
- (9절) 여기에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ἔστιν παιδάριον ᾧδε ὃς ἔχει πέντε ἄρτους κριθίνους καὶ δύο ὀψάρια·)
그러나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ἀλλὰ ταῦτα τί ἐστὶν εἰς τοσούτους·)
-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그 사람들을 앉도록 하라 (ποιήσατε 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ἀναπεσεῖν·)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습니다 (ἦν δὲ χόρτος πολὺς ἐν τῷ τόπῳ·)
그래서 오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ἀνέπεσαν οὖν οἱ ἄνδρες τὸν ἀριθμὸν)
그들이 앉게 되었을 때 (ὡς πεντακισχίλιοι)
- (11절) 예수님이 그 빵덩어리를 잡으셨습니다 (ἔλαβεν οὖν τοὺς ἄρτους ὁ Ἰησοῦς)
그리고 축사를 하신 후에 (καὶ εὐχαριστήσας)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διέδωκεν τοῖς ἀνακειμένοις)
그리고 물고기로부터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ὁμοίως καὶ ἐκ τῶν ὀψαρίων ὅσον ἤθελον·)
- (12절) 그리고 그들이 만족하게 되었을 때 (ὡς δὲ ἐνεπλήσθησαν·)
그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버리는 것이 없도록 넘치는 조각들을 모으라
(συναγάγετε τὰ περισσεύσαντα κλάσματα, ἵνα μὴ τι ἀπόληται·)
- (13절)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συνήγαγον οὖν)
그것들은 다섯 개의 보리 빵 조각들로부터 열두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καὶ ἐγένεσαν δώδεκα κορῖνοι κλασμάτων ἐκ τῶν πέντε ἄρτων τῶν κριθίνων)
그것은 그것을 먹은 사람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ἃ ἐπερίσσευσαν τοῖς βεβρωκόσιν·)
- (14절) 그런데 그가 행한 표적을 그사람들이 보았을 때 (Οἱ οὖν ἄνθρωποι ἰδόντες ὃ ἐποίησεν σημεῖον)
그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이분은 진실로 이 땅으로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ἀληθῶς ὁ προφήτης ὁ ἐρχόμενο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곧 그에게 와서 그를 잡으려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
(Ἰησοῦς οὖν γνοὺς ὅτι μέλλουσιν ἔρχεσθαι καὶ ἀρπάζειν αὐτὸν ἵνα ποιήσωσιν βασιλέα·)
그자신이 홀로 다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ἀνεχώρησεν πάλιν εἰς τὸ ὄρος αὐτὸς μόνο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5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으로 판단하건데 아마도 예수님을 자신들을 정치적 식민 상태에서 회복시키고 그 옛날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은 공통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날이 저물었고” 그들이 “빈들”에 있어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유월절이 가까웠고 그 때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의 기록만을 놓고 보면 이들이 저녁까지 굶었는데 빈들이라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딱한 사정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공관복음의 기록을 여기에 가져와 그들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진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상황보다는 다른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해야만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모른 채 (또는 무시한 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6절을 읽으면 그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일 것인가?’라고 물어 보셨는데 그런 질문을 하신 의도가 바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빌립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거나 그것을 통해 그의 믿음 없음을 폭로해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질문한 것은 “먹을 것의 원천이 어디겠는가?”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저들을 먹일 것인가?”라는 일종의 수사적 질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사적 질문은 그 답이 질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는 “진짜 양식은 이 세상에는 없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썩을 양식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 것은 빌립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빌립 역시도 ‘먹을 것’ = ‘땅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참된 양식은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아마 자동적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6절 후반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가 친히 바로 이후에 행하실 것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입니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대화 직후에 자신이 행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에게 한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로부터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살 수가 없단다. 그것은 나의 영역이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만약 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면 그 빵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삼시세끼 챙겨먹는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요한이 굳이 저녁무렵이니 빈들이니 하는 얘기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다른 공관복음들은 오병이어를 기록한 관점이 다릅니다. 공관 복음에서는 저녁이라는 시간과 빈들이라는 공간적 제약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관 복음을 공부할 때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을 읽으십시오. 빌립의 대답은 역시 우리가 기대한 대로입니다. 빌립은 “각각 조금씩만 받아도 이 백 데나리온의 빵이 모자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답입니다. 빌립의 이 말은 사실 옳은 말입니다. 실제로 남자만 세어도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거기다 여자나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빵을 사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통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조금씩만 빵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약 200일치 품삯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말한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고 그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없었을 경우와 대조하여 왜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오병이어의 기적 (4)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6:1~15)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에게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
14.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이 일이 있은 후 (Μετὰ ταῦτα)
 예수님이 갈릴리, 즉,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ἀπῆλθεν ὁ Ἰησοῦς πέραν τῆς θαλάσσης τῆς Γαλιλαίας τῆς Τιβεριάδος.)
- (2절)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ἦκολούθει δὲ αὐτῷ ὄχλος πολὺς.)
 왜냐하면 그가 환자들에게 행하는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εἰθεώρουν τὰ σημεῖα ἃ ἐποίει ἐπὶ τῶν ἀσθενούντων.)
- (3절) 예수께서 산에 올랐습니다 (ἀνῆλθεν δὲ εἰς τὸ ὄρος Ἰησοῦς)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καὶ ἐκεῖ ἐκάθητο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 (4절) 유대인의 축제일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ἦν δὲ ἐγγὺς τὸ πάσχα, ἡ ἑορτὴ τῶν Ἰουδαίων.)
- (5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Ἐπάρας οὖ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θεασάμενος ὅτι πολὺς ὄχλος ἔρχεται πρὸς αὐτὸν)

-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Φίλιππον·)
 그들에게 먹일 빵을 어디서 살 것인가? (πόθεν ἀγοράσωμεν ἄρτους ἵνα φάγωσιν οὗτοι·)
- (6절) 그가 그를 시험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τοῦτο δὲ ἔλεγεν πειράζων αὐτόν·)
 그가 친히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αὐτὸς γὰρ ᾔδει τί ἔμελλεν ποιεῖν·)
- (7절)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ὁ] Φίλιππος·)
 각각 조금씩만 받아도 이백 데나리온의 빵이 모자랄 것입니다
 (διακοσίων δηναρίων ἄρτοι οὐκ ἀρκοῦσιν αὐτοῖς ἵνα ἕκαστος βραχὺ [τι] λάβῃ·)
- (8절)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εἷ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Ἀνδρέας ὁ ἀδελφὸς Σίμωνος Πέτρου·)
- (9절) 여기에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ἔστιν παιδάριον ὧδε ὃς ἔχει πέντε ἄρτους κριθίνους καὶ δύο ὀψάρια·)
 그러나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ἀλλὰ ταῦτα τί ἐστὶν εἰς τοσούτους·)
-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그 사람들을 앉도록 하라 (ποιήσατε 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ἀναπεσεῖν·)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습니다 (ἦν δὲ χόρτος πολὺς ἐν τῷ τόπῳ·)
 그래서 오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ἀνέπεσαν οὖν οἱ ἄνδρες τὸν ἀριθμὸν)
 그들이 앉게 되었을 때 (ὡς πεντακισχίλιοι)
- (11절) 예수님이 그 빵덩어리를 잡으셨습니다 (ἔλαβεν οὖν τοὺς ἄρτους ὁ Ἰησοῦς)
 그리고 축사를 하신 후에 (καὶ εὐχαριστήσας)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διέδωκεν τοῖς ἀνακειμένοις)
 그리고 물고기로부터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ὁμοίως καὶ ἐκ τῶν ὀψαρίων ὅσον ἤθελον·)
- (12절) 그리고 그들이 만족하게 되었을 때 (ὡς δὲ ἐνεπλήσθησαν·)
 그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버리는 것이 없도록 넘치는 조각들을 모으라
 (συναγάγετε τὰ περισσεύσαντα κλάσματα, ἵνα μὴ τι ἀπόληται·)
- (13절)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모았습니다 (συνήγαγον οὖν)
 그것들은 다섯 개의 보리 빵 조각들로부터 열두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καὶ ἐγένεσαν δώδεκα κορῖνοι κλασμάτων ἐκ τῶν πέντε ἄρτων τῶν κριθίνων)
 그것은 그것을 먹은 사람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ἃ ἐπερίσσευσαν τοῖς βεβρωκόσιν·)
- (14절) 그런데 그가 행한 표적을 그사람들이 보았을 때 (Οἱ οὖν ἄνθρωποι ἰδόντες ὃ ἐποίησεν σημεῖον)
 그들이 말했습니다 (ἔλεγον)
 이분은 진실로 이 땅으로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ἀληθῶς ὁ προφήτης ὁ ἐρχόμενο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곧 그에게 와서 그를 잡으려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
 (Ἰησοῦς οὖν γνοὺς ὅτι μέλλουσιν ἔρχεσθαι καὶ ἀρπάζειν αὐτὸν ἵνα ποιήσωσιν βασιλέα·)
 그 자신이 홀로 다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ἀνεχώρησεν πάλιν εἰς τὸ ὄρος αὐτὸς μόνο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8~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많은 사

람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빌립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what)을 얼마나(how)로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티(τι)’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what)’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전통적으로 이를 무엇(what)으로 번역하고 있고 오직 NIV만 how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만약, ‘얼마나(how)’로 번역하게 되면 안드레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양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부정적 생각 즉, 여전히 식량의 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엇(what)’으로 번역하면 이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둘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라고 그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후에 보여주신 가르침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당신은 안드레의 이 질문을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후 전개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량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먹는 그 음식이 과거 광야에서 내려준 하늘의 양식인 만나임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만나는 그림자에 불과했으며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인 떡과 물고기를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접근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필이면 왜 보리떡이 다섯 개이며 물고기가 두 마리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 것이고 별의미가 없는 것이니 따지지 말라.’거나 ‘아주 적은 수량을 의미하는 것 외에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느꼈듯이 성경에는 아무 의미없이 ‘그냥’ 쓰인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 깊이에 다다르지 못해 그 의미를 놓치는 수는 있어도 성경에 쓰인 단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필이면 보리 떡이 다섯 개이며 물고기가 두 마리였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많은 학자들은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의 특성상 확실하지 않은 것을 추측하여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접근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조심스런 태도 때문에 때로는 성경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놓치거나 심지어는 왜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의 주석을 쓴 R.T France는 그의 책 *The Gospel of Mark* (NIGTC, 2002)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각종 숫자들 즉, 다섯, 둘, 열둘 등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구약의 모세오경, 유다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과연 타당한 건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구속사건의 하나였음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